

與 ‘당정관계 개선’ 최대 화두… 지지자 “응원후보가 책임자”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

정치권 “韓 당 대표 되면 파열음 친윤계 元, 직언 기능상실 우려”

韓 지지자 “관계 오히려 좋아질 것”
元 지지자 “尹과 가장 밀접한 관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관계 개선’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관계는 말그대로 당과 정부의 관계를 뜻하는데, 현장의 여론을 정당이 모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떨어진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에 파열음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반면,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정부에 직언 하는 기능이 상실되지



국민의힘 한동훈(왼쪽부터),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17일 경기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않을까 걱정한다.

각 후보들은 방송토론이나 합동연설회 등에서 자신이 당정관계를 수습 및 개선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이를 담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장에 운집한 지지자

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당정 관계 수습의 책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합동연설회엔 추계 추산 5000명의 지지자와 당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한동훈 후보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노래에 맞춰 흔들던 여성 지지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한동훈 후보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함부로 인터뷰하지 말아야 한

다는 주변 지지자의 만류에도 이 지지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 사람은 오직 한동훈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왔다는 남성 지지자는 나 후보에 대해 “동작구에 흥수 피해가 났을 때, 일정이 있음에도 차를 돌려서 직접 몸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신 분”이라며 “국민의 힘에서 오랜 경륜이 있고 이 시대에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가 당정관계 개선에 적합할지 묻는 질문엔 “나 후보는 사심이 없고 당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당도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굴복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언도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정치학박사라고 밝힌 정영국 씨는 “윤상현 후보는 의리가 있고 인간

성 좋은 정치인”이라며 “지성과 지혜, 경륜이 있는 후보,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후보, 당정관계 정상화와 여야 극단적 상황 해소에 있어서 정치철학이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지금 당 대표들이 지금은 서로 반박하지만,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를 맞으면서 원 후보를 응원하던 지지자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이 정리된 후 만난 원 후보 지지자는 “원 후보는 제주시사 할 때부터 지지했고 일을 그 누구보다 잘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이고 두뇌 또한 탁월하다”고 치켜세웠다.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 후보가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가장 열심히 일할 후보”라고 했다. /고양(경기)=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재명 45%’로 대세론 곳곳

여론조사 김두관 30.8%, 김지수 3.4%
野 지지층 대상으로는 후 85.6% 나와
지난 전당대회와 비슷한 양상 전망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 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

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

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나’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

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도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강행 중단해달라”

“與와 원점에서 법안 재검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 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내정

(전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 기자